

# 취약계층 지원정책 호응

### 익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카드수수료 등 지원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1700여명에 일자리 제공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골목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과 이자, 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4~7등급)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이자 1%는 자부담하고 초과분에서 5%

이내 이자는 5년간 시에서 지원해준다. 그동안 88건, 18억4,000만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됐다.

카드수수료는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8%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예산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되었으나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상반기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2월 1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6,042건, 16억7,600만원이 카드수수료로 지원됐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실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업 참여자는 총 1,681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생 일자리·단기인턴사업, ▲14개 동 가로환경정비사업 ▲용안생태습지공원 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학생 일자리 및 단기 인턴 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이 시청과 시 소재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방학 기간 동안 직업체험을 연습하는 사업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14개 동 가로환경정비사업'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총 3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취약구역 가로청소와 주요 인도변 제조작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제3·4일반산업단지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85%를 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익산 일반산업단 분양률 85%

### 울 1350억원 투자 이끌어내... 300여명 고용 창출 기대

익산 제3·4일반산업단지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85%를 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울 한 해 제3산업에 에이치에스메티얼즈 등 6개 업체, 제4산업에 이너엔 등 3개 업체 등 총 18억19,000㎡의 분양(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분양 계약으로 1,350여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3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제3산업의 경우 총 분양대상면적 158만6,000㎡ 중 8개 업체와 135만3,000㎡에 대한 분양계약이 마무리됐다. 일반, 외부단지 외 전방, 동우화인켄, 지앤지엔터프라이즈, 마더스 제약, 한솔 케미칼, 합소이제약 등 45개 업체가, 패션단지에는 신리주얼리, 쎄이스, 하이주얼 등 38개 업체가 입주하거나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투자를 준비 중으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제4산업은 총 분양대상면적 30만6,000㎡ 중 총 19개 업체와 26만 3,000㎡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유셀, 대일푸드, 동이식품, 연두 등 13

개 업체가 입주하며 가동 중이다. 현재 하림산업, HS푸드 등이 시험가동을 종료로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자가 완료될 예정으로 완료 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이르기 위한 대응에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옛 마동사무소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홀로그램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서비스센터의 홀로그램콘텐츠 제작, 평가, 실증 등을 위한 연차별 장비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익산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홀로그램 등 5개 기업을 필두로 6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들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까지 병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 고레카레, '군산카레' 공급 계약

### 연간 3kg 포장제품 3만2000개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역 우수 농산물의 고령 판로 개척을 실시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서울 소재 카레전문 외식업체 (주)고레카레와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부식품공장이 카레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주)고레카레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군산농업기술센터가 제조공정을 개발해 상품화한 것으로, 공급 규모는 연간 3kg 포장제품 3만2,000개(96톤)이다.

(주)고레카레는 서울과 수도권에 14개소, 인도에도 1개소의 매장을 운영하는 카레전문 외식업체로 연간 100여톤의 카레를 소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생산과 품질관리에 겪었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으로 공급한다.

또한 (주)고레카레와 군산 농부식품공동매케팅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외식업체와 지역 농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는 서울 소재 카레전문 외식업체 (주)고레카레와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부식품공장이 카레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군산시의회 예결위, 결산추경 앞두고 역량강화 워크숍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혜춘)가 지난 9일 '문화예술 콘텐츠 스테이션'에서 2020년도 결산 추경 및 2021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실시했다.

예결위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공유하여 관내 지역에서 워크숍을 열고 집

행부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일자리창출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등 각종 현안사업과 함께 2020년 결산추경 및 2021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 사업의 증액내역 및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

의하는 등 결산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및 시행정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혜춘 예결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안을 더욱 철저히 심사해 편중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경제와 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 원광대 동물자원개발연구센터, 온라인 학술대회

원광대학교 총장 박맹수) 동물자원 개발연구센터는 KBS미디어평생교육센터 및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치매 환자와 동물매개치료: 효과와 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대면 접촉이 이뤄지지 않는 방식으로 최근 열렸다.

학술대회는 KBS미디어평생교육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등록한 참가자 300여 명이 사전 녹화된 학술대회

강연을 듣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센터장 김옥진(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농촌진흥청 반려동물연구사업단 지원으로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 사업인 '인간과 동물의 교감 치유 기전 및 외부환경이 동물의 신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차기년도 과제로 수행하는 '치매 환자에 대한 동물교감치유'에 관한 향후 연구 방향 정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청춘미가 운영자 공모

군산시가 청년창업 플랫폼 '청춘미가'의 차기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며 청년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근대역사 테마거리 내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선도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의 차기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춘미가는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기본 주방 설비가 완비된 창업플랫폼 사업장을 무료로 제공해 실전경험을 쌓도록 하여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식 창업장이다.

이번 공개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여야 한다. 청년창업플랫폼(청춘미가) 운영자 공개 모집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도시재생과(063-454-447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 중 · 소형 이륜차로 확대

군산시는 오는 2021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기존 대형에서 중 · 소형 이륜차로 확대 포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기검사 대상에 배기량 20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만 해당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범위의 중 · 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포함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1만여대이고, 중 · 소형 이륜차는 9,600여대로 이 중 750여대가 내년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단,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경형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신고된 중 · 소형 이륜차 및 외교관 소유의 이륜차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